

김성곤 불출마 ‘무주공산’ ... 입지자 8명 경쟁 치열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름	김성곤	강화수	김점유	송대수	김경호	김영규	
나이	50	42	53	60	49	59	
역력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후원회 ·현) 전남후원회 ·현) 여수장애인 체육회 이사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전) 행정안전부 ·전) 국회의원 정책 ·전) 국회의원 정책 ·전) 국회의원 정책 ·전) 국회의원 정책	·전) 대통령속 국가 ·전) 대통령속 국가 ·전) 대통령속 국가 ·전) 대통령속 국가 ·전) 대통령속 국가 ·전) 대통령속 국가	·현) 더민주 여수갑 ·현) 더민주 여수갑 ·현) 더민주 여수갑 ·현) 더민주 여수갑 ·현) 더민주 여수갑 ·현) 더민주 여수갑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여수갯길 이사장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명진한마음봉사	·현) 법무법인 태원 ·현) 법무법인 태원 ·현) 법무법인 태원 ·현) 법무법인 태원 ·현) 법무법인 태원 ·현) 법무법인 태원

김성곤 의원·주철현 시장 지원 누가 받을지 ...

■ 관련 포인트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여수갑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역인 김성곤 의원과 주철현 여수시장의 지원을 어느 후보가 받느냐다.

김 의원은 주 시장 측은 공식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심으로 지원하는 후보가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 관리가 다소 소홀했는지라 여수에서 4선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중립 의사와 무관하게 지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순수 토박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주변에 적이 없고 이웃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아저씨' 이미지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방정치 만으로는 지역발전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의 경륜에 이변호사는 '희망의 시작 새인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패기로 맞서고 있다.

또 '차세대 주자' '큰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여수중·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순천지정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출마회견에서 "여수발전과 미래 세대 번영을 위해 여수시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큰 정치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여수에서 시작하겠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신인에게 여수의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주 관광·문화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여수에서도 여수갯길길을 만들고 여수 관광·문화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출마회견에서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여고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2012년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적이 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후보군이 3명밖에 없는 것도 이런 김 의원 측의 태도 탓이란 분석도 있다.

신당 바람 맞고 있지만 후보자 간 복잡한 셈법이 더민주 후보자를 줄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 후보가 더민주 또는 다른 당, 무소속 등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주 시장의 의지도 경선과 본선에서 승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시장은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그가 국민의당 후보에 마음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 주 시장이 국민의당 소속인 3명의 예비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지 아니면 엄정 중립을 지킬지 등이 국민의당 경선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갑은 안철수 대표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어서 본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누가 뭐냐

여수시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4선 김성곤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중 하나다.

22일 현재 이곳에는 모두 7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치과의사인 신정일(5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수지회장이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제1야당인 더민주에서는 송대수(60)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점유(53)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강화수(42) 전 청와대 정책조정행정부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는 김경호(49) 제주대 교수, 김영규(59) 전 여수시의회 의장, 이용주(47)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나섰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유미(37)씨도 국민의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재까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 속에 새누리당 후보의 추격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누리, 영입 신정일 “제2의 이정현 되겠다”

더민주, 강화수·김점유·송대수 예비후보 등록

국민의당, 김경호·김영규·이용주·이유미 나서

◇더민주=손 전 부의장은 여수시의원과 3선 전남도의원을 지내는 등 지난 20여년 간 지방자치에 몸 담아왔다.

또 전남도의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과 부의장, 의장직무대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 등을 거쳐 지역 사정에 도대단히 밝다.

특히 4번의 지방의원을 하면서 다진 탄탄한 기반은 이번 경선에서 최대 강점이 되고 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여수의 숙원인 30만 인구 회복을 위해 ▲구도심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칭)여수타워 설립 ▲울촌산단 조기 개발로 기업 투자 유치 및 일자리 확대 ▲기후변화정당 등 국제컨벤션 유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국회 정책보좌관 경력에 있는 강 전 행정관은 지난 1월20일 출마선언을 하며 ▲엑스포박람회장에 바다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인 디즈니씨 (Disney Sea) 유치 ▲만성리~오동도 입구~신월동으로 이어지는 해변에 트램(노면전차) 설치 ▲중국어 전용 영리병원유치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았다.

순천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별보좌관과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던 김 전 자문위원도 지난 2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중심 정치 구현 ▲보편적 복지 실현 ▲지역갈등 치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김 전 의장은 4선 여수시 의원 출신으로 사회복지법인 재생원 이

시장,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 명진한마음봉사회 상임고문, (사)지구촌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 여수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30년 이상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수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순수 토박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주변에 적이 없고 이웃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아저씨' 이미지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방정치 만으로는 지역발전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의 경륜에 이변호사는 '희망의 시작 새인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패기로 맞서고 있다.

또 '차세대 주자' '큰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여수중·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순천지정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출마회견에서 "여수발전과 미래 세대 번영을 위해 여수시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큰 정치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여수에서 시작하겠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신인에게 여수의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주 관광·문화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여수에서도 여수갯길길을 만들고 여수 관광·문화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출마회견에서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여고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2012년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적이 있다.

원도심 활성화·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이슈

■ 선거구 특징

여수갑 선거구는 원도심이자 여수박람회 개최 지역이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 방안이 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여수갑은 여천시·군 지역인 여수읍보다 애초 인구가 많았지만, 여수시청이 여수를 지역으로 옮기면서 여수갑 인구가 읍지역에 비해 4만6000여명이나 부족한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수갑 인구가 인구하향선에 미달, 여수를 소속인 미평·만덕동을 떼어와야 여수시에 2개의 선거구를 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수갑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선 의원을 많이 배출해왔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부터 1996년 15대 총선 때까지 여수시는 여천시·군과 분리된 선거구였다.

이곳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평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이어 '3려(麗) 통합' 이후 치러진 16대 총선(2000년)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단일 선거구 여수시에서 4선에 성공했다.

또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수갑·읍·로 분구돼 여수갑에 김성곤, 여수읍에서 주승용 의원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각각 당선된 이후 18대 총선(2008년), 19대 총선(2012년)까지 당명만 바뀐 채 4선과 3선에 각각 성공했다. 앞서 김 의원은 15대 총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여천시·군에서 초선이 됐다.

즉, 여수갑만 보더라도 4선, 3선을 연속으로 허락한 선거구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 총선도가 높은 유권자로서 유리한 지역이고 도전자 입장에서는 여론을 쉬이 바꾸기 힘들어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역인 김성곤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다선의원을 꿈꾸며 초선을 노리는 후보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원광주안과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